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1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9.(수) 14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2. 9.(수)	담당부서	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
담당과장	김도헌 팀장(044-203-4068)	담 당 자	김상효 사무관(044-203-4098)

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추진을 위한 「산업·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」 출범

□ **산업통상자원부**(장관 문승욱)는 **2.9(수), 해외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안**을 **모색해** 나가기 위하여 **「산업·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의체」 출범식***을 **개최**하였음

* 일시/장소 : '22.2.9(수) 14:00~15:30 / 대한상의 1층 EC룸

○ 이날 출범식에서는 산업부장관,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인사, 국제감축 전담기관, 검증기관 등 유관기관장, 발전사를 비롯한 대규모 배출업체 기업인 등 25여 명이 참석하였음

○ 이번 협의체는 COP26('21.11월, 영국)**에서** 타결된 **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**하여, **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**하기 위한 것임

<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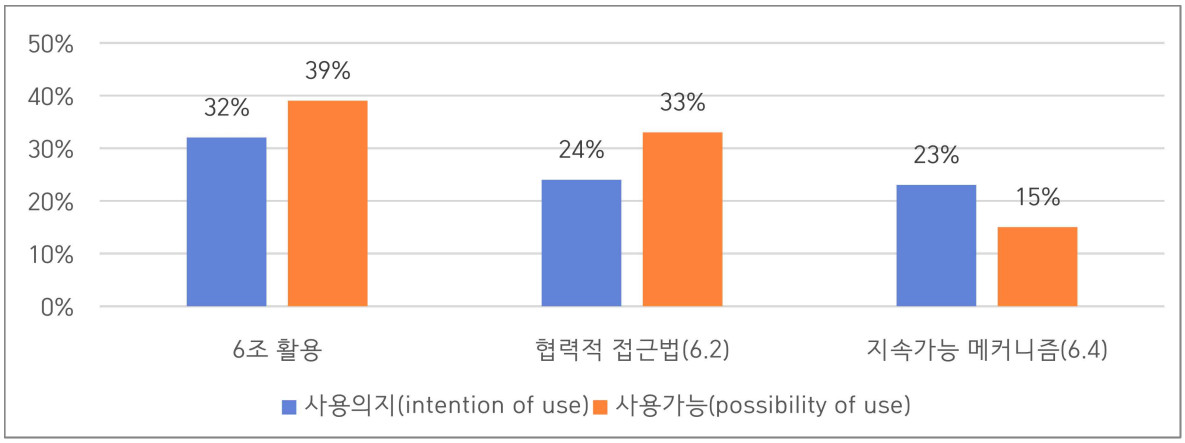


□ **우리나라**는 “2030 NDC”에서 ‘30년 **국외감축 목표를 3,350만톤(전체 감축목표의 약 11.5%)**으로 **제시**한 바, 국내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더불어 **앞으로 국제감축사업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** 함

○ **국제감축사업**은 ODA(무상지원 방식)와 달리 **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형태로 추진**되기 때문에, **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경제성도 확보해야** 하는 만큼 **유망 프로젝트를 선점**해 나갈 필요가 있음

○ 다른 국가들도 **NDC 이행을 위해 국제감축 시장메커니즘을 활용**할 계획이며, 특히 지속가능 메커니즘(6.4조)에 비해 행정절차 등이 간소한 **협력적 접근법(6.2조)의 활용 의향이 높은 것으로 제시**되었음

< 파리협정 6조 활용 의향 >



* 출처 : UNFCCC Synthesis Report(21.9월), 총 164개 NDC분석

○ 특히, **일본, 스위스, 스웨덴 등**은 이미 발빠르게 다수 국가와 양자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, 시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

* (일본) ‘11년부터 잠재 협력국과 협상을 개시, ‘13년 몽골과 최초로 JCM 파트너십 체결 이후, 현재 총 17개국과 파트너십 체결 및 193건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시행중
** (스위스) ‘20.10월 페루와 최초 협정 체결 이후, 현재 가나, 세네갈, 조지아, 바누아투, 도미니카 등 총 6개국과 양자협정 체결
*** (스웨덴) 파리협정 세부 규정이 완성될 때까지 6개 pilot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아르헨티나 등과 양자협력 설계방안을 논의 중

□ 산업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우리 기업들의 해외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, **투자의 불확실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장 중요**하다고 판단하고 **민간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**할 계획임

○ 이번에 출범하는 **국제감축사업 협의체**는 **산업부 및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**(에너지공단·KOTRA), **유관기관**(품질재단 등 검증기관, KIAT, 무보 등), 발전사 등 **국제감축사업 추진 주요 민간기업**을 **망라하여 구성**하였음

○ 이날 협의체에서는, **온실가스 국제감축 규범 논의동향, 파리협정 이전의 청정개발체제(CDM) 사업 추진사례, 정부 정책방향(양자협력 대상국 및 추진방식*)**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

* 탄소중립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방식: 기술지원, 투자, 구매 등

○ 산업부는 협의체를 통해 민간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**국내외 규범대응, 협력 우선국가 선정, 유망 프로젝트의 발굴·컨소시엄 구성** 등 **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**해 나갈 예정임

○ 또한, 탄소중립위원회 및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을 통해 국제감축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계획임

□ 문 장관은 "그동안 UN에 등록된 CDM 사업에서 산업·에너지 비중이 76%인 만큼, 파리협정에 따른 **국제감축사업에서도 산업·에너지 부문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**고 강조"하였음

○ 또한, "**오늘 협의체가 출범**함으로써, **산업 및 에너지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**"고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음

○ 더불어 "다른 국가들과 경쟁을 하면서 **경제성이 있는 유망 프로젝트를 선점하고 추진**해야 할 **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**"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하였음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국제감축사업팀 김상효 사무관(☎ 044-203-409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